불자 세상보기

#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가)

영화 〈귀향〉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공허한 현대인의 마음을 채워주는 강한 주체의식 때문이라 본다.

소설가 토머스 울프의 작품 이름에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제목이 있다. 정신대에 끌려갔던 꽃다운 조선소녀들은 두고 온 고향에 다시 못 간다. 대신 그들은 더 큰 자각을 한다. 내가 태어난 고향엔 못 가지만 영원한 마음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마음의 고향이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다. 영화 〈귀향〉은 역사와 인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그래서 제목도 귀향(歸鄕)이 아니고 귀향(鬼鄕)이다. 영혼이 고향을 돌아간다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 영화가 머금고 있는 근본 문제의식이다. 정신대에 끌려간 조선소녀들은 처참하게 찢기고 마침내 짧은 인생을 마감한다. 일제의 만행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관객들에게 거꾸로 피가 솟게 만든다. 이 영화는 일제의 폭압에 대해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 영혼이 차마 극락에 갈 수 있겠는가. 영화 속에서 소녀들은 지옥에서 살고 죽었다. 이 영화는 그들을 애도하고 묵념한다. 분노를 삭이면서 우주의 근본 가르침을 찬찬히 짚어보게 한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영화는 한 위안부 할머니의 현재 모습에서부터 시작하여 과거를 넘나든다.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현재와 과거를 잇는 두 개의 장치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어머니가 딸의 신변을 걱정하여 만들어준 괴불노리개이고 죽은 소녀들의 영혼처럼 등장하는 나비다. 이 둘은 영화의 은유적 기능을 해준다. 괴불노리개의 소유자는 현재의 위안부 할머니지만 그건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언니의 마지막 유품이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은 것 같은 언니의 영혼을 추모한다.

나비는 산 자와 죽은 자 곁을 넘나들고 조선의 산천을 자유롭게 떠돈다. 나비는 자유를 상징한다. 이 영화에서 나비는 마치 장자의 나비를 연상케 한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위안부 할머니 현재 · 과거 다뤄**
**일제 폭압 대한 분노 반영해**
**역사 반복되지 않는 염원 담아**

〈장자〉에서는 장자와 나비가 분명 다른 존재라고 말한다. 그것을 물화(物化)라 했다. 물화는 경계가 있는 세상의 이치다. 하지만 물화가 분명치 않은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다. 영화는 삶과 죽음 두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고자 한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장치로 진도 씻김굿이 등장한다. 할머니는 굿을 통해 과거를 만난다. 무속을 통해 과거와 현재는 이어져 있다. 무속은 일제가 그토록 없애고자 했지만 없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민간전통의식이다. 한국인이 조선소녀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는 것이 무속의 세계를 통해서라는 설정은 흥미롭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영화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설명한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 죽은 사람들을 등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의 의미다. 우리 할머니들의 역사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스며있다. 영화는 과거 선조들의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며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염원으로 되살아난다.

인간으로서 공감되는 사연을 담았기에 귀향이 주는 울림은 강하다.

사부대중 칼럼

# 고대 인도로부터의 한 교훈

조성택
고려대 교수

다원성은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다양한 문화, 종교, 가치관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객관적 척도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객관'이란 관점 자체가 일종의 '폭력'일 수 있다. 다원성을 실천하고자하는 다원주의는 단순히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천 명제이기도 하다.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를 상대적 진리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라 해도 모두 동일한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적 태도에는 하나의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다양한 색채로 분광되는 현상을 다종교적 상황에 대한 비유로 활용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관용과 인정이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실천적 덕목이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종교적 상황은 비단 현대사회만의 특징은 아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사회도 다종교 사회였다.

초기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시하장군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바이샬리의 한 자이나교도인 시하 장군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조금은 의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난다. 부처님과의 토론 끝에 시하장군은 불교로 개종하고자 결심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절을 한다. 거절의 이유는 시하장군이 자이나교의 큰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가 불교로 개종을 할 경우 자이나교가 입을 사회적 경제적 타격 때문이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부처님은 시하장군이 계속 자이나교 승려들과 재가자들을 잘 대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것을 다짐받고서 그의 개종을 허락한다.

불교의 입장에서 자이나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외도(外道)의 종교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도들을 없애고자한 것이 아니라 외도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를 넘어 보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객관'도 일종의 '폭력'**
**다원주의는 현대사회 명제**
**종교간 상호이해 · 공존 필요**

고대 인도의 다종교 상황은 부처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아쇼카 왕의 제12석주의 비문은 오늘날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공존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열렬한 불교도로 잘 알려진 아쇼카 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교로의 개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의 상호 이해와 공존이었다.

그 비문의 내용을 현대적 어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 아쇼카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는 자랑하고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건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쇼카왕의 모습에서 현재 다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위 칼럼은 3월 2일자 화쟁아카데미 제27호 화쟁시민칼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社說

# 법륜사 주지선출로 재점화된 내홍

총무원장이 구속되는 등 초유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이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총무원 청사에 위치한 법륜사 주지 선출을 두고서다. 불이성 법륜사로도 불리는 법륜사(法輪寺)는 유서깊은 태고종의 대표적 공찰이다.

이 곳은 일제 강점기인 1929년에 박대륜 스님이 개설한 금강산 유점사의 경성포교당으로 출발했다. 불이성 법륜사라는 이름은 유점사와 법륜사는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그래서 법륜사는 불교의 근대식 포교가 시작된 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법륜사는 한국불교 최초의 근대화된 포교당이자 대승교화의 효시로 평가 받는다. 1950년대에 대처승과 비구승의 격렬한 대립이 있은 후 조계사서 밀려난 대처승 측 거점이었고, 이들이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을 창립할 때도 박대륜 스님이 태고종 초대 종정에 오르며 종단의 본거지로 삼기도 했다.

태고종에서는 종단 창종의 산실인 불이성 법륜사를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법맥 계승의 의미가 있다며 특별히 여기고 있다. 이를 계승하기 위해 태고종은 2006년 법륜사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물을 지었으며 법륜사는 이 건물 지상 3층에 자리잡고 있다.

법륜사의 주지는 대륜문도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성원이 안된 유령 이사회라는 주장과 멸빈된 이사들은 자격이 없어 그들이 선출한 주지도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번에도 쉽사리 갈등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제 곧 봄이 도래하는데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태고종에는 언제나 봄소식이 들려올까?

# 끊임없는 변신 필요한 템플스테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21만943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3월 3일 발표한 '2015 템플스테이 참가자 통계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2014년 대비 약 13.5%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내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10%이상 증가한 해는 없었던 것에 비춰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메르스 여파에도 템플스테이가 이처럼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관광주간'에 맞춰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인 게 주 원인이다.

여름휴가기간인 8월을 제외하고, 관광주간이었던 5 · 10월은 다른 달에 비해 참가자가 2~3배가량 많았다. 당시 문화사업단은 1만원으로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실시, 열흘 만에 매진되는 호황을 누렸다. 진입 문턱을 낮추고 참가자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번 만족도 조사(7995명 대상)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문은 '인력(서비스 및 응대 태도)'이다. '프로그램'은 7개 부문 중 6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만큼 일선 현장에서 템플스테이를 보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열의가 크다는 뜻이지만 참가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최근 템플스테이는 웹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되거나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입지를 다졌다. 대중과 꾸준히 호흡할 수 있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변화 없는 발전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제는 템플스테이에 '가치'를 담아 내실을 기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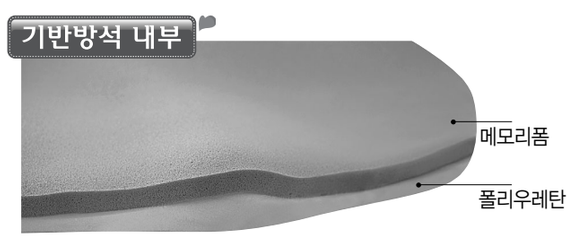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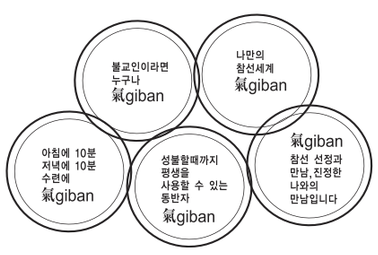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